

차세대 무형유산 이수자 전통예술 공연

국립무형유산원, 12일~9월 20일 총 6회 '이수자전(傳)' 개최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은 7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일주마루 공연장에서 '2025 이수자전(傳)'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는 상설 공연인 '이수자전'은 무형유산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이수자들이 전통을 지키면서 동시에 현대 감각으로 재해석한 공연으로, 매년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거쳐 공연 작품을 선정한다.

올해는 총 6편의 작품이 선정됐다. 거문고 산조, 판소리(고법), 피리정악, 강령탈춤, 통영오광대, 판소리 종목의 이수자들이 전통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실험과 창작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전통을 기반으로 한 재해석, 다

분야와 융합, 판소리의 옛 형식 복원 등 각기 다른 시도를 통해 전통예술의 새로운 해석과 동시대적 가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예약은 각 공연 10일 전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전통을 지키며 창의적인 시선으로 무형유산을 재해석하는 차세대 이수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무형유산의 전승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2025 이수자전(傳)' 포스터



전주한지 활용 해의 수목화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전주한지 우수성 해외에 알린다

전주문화재단, 오스트리아서 전주한지 활용 수목화 워크숍·전시회 진행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예술학교와 Bre/Bg Kristin 쿠프슈타인 예술학교에서 전주한지를 활용한 해의 수목화 워크숍과 전시회가 열린다.

1일 전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우용민, 이지연, 안혜경, 김하영 4명의 작가와 함께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Bre/Bg Kristin 쿠프슈타인 예술학교에서 '2025년 전주한지를 활용한 수목화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재단이 제공한 전주한지가 활용되며, 프로그램 참여 작가들과 100여 명의 오스트리아 학생과 교사들에게 전주한지를 접하게 함으로써 향후 작품 활동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두 개의 예술학교에 재학중인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수목화라는 영역을 통해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소재인 한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앞으로 하게 될 작품 활동에 더 많은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라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주한지 활용 수목화 워크숍이 올해 해외에서만 두 번째 진행됐다"며 "해외 작가들에게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더 자주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회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예술학교에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11일간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고창군-정선군 자매결연 1주년 특별공연 '아리아라리' 개최

고창문화의전당에서 고창군-정선군 자매결연 1주년 특별공연 '아리아라리' 공연이 오는 10일(저녁 7시30분), 11일(오후 3시)에 이틀간 열린다.

'아리아라리'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원 정선의 '정선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뮤지컬 퍼포먼스다. 연극, 무용, 타악, 영상 등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고창군과 정선군의 자매결연 1주년 기념으로 진행되며 고창군, 정선군이 주최하고 고창문화의전당,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 주관한다.

공연은 무료이며 티켓예매는 오는 3일 9시부터 인터넷 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 현장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진행되며, 주말은 현장예매가 제외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국문인협회 부안지부는 지난달 28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제4회 향토문학상 시상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문예의 고장 부안, 문학으로 촛불 켜다

한국문인협회 부안지부, 창립 30주년 기념식·향토문학상 시상식 성료

한국문인협회 부안지부는 지난달 28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제4회 부안 향토문학상 시상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1부에서는 제4회 부안 향토문학상 시상식이 개최됐으며, 올해 문학상 공모로 추천된 20여명의 후보 중 2010년 '지구 문학' 신인상 수상과 함께 등단해 시집 '그 산에 취하고 싶다'를 발간한 '김영렬 시인'과 2015년

'한국작가' 신인상 수상과 함께 등단해 칼럼집 '거짓과 진실' 등을 발간한 '신대철 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부 행사는 한국문인협회 부안지부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로 축하 시무떡 커팅식, 공로패 수여,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30주년 기념식에는 초대 지부장인 윤갑철 지부장을 비롯한 역대 지부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 제95회 춘향제 결과보고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달 30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95회 춘향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해 시청 각 부서장과 담당팀장, 춘향제전위원회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축제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제95회 춘향제는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를 주제로 광한투원과 남원시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150여개의 프로그램과 공연이 운영되었으며, 대동길놀이, 시민합창단 공연, 야간경관 조성 등 시민 참여와 감동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주목을 받았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각 부서의 추진성과와 운영상의 개선점을 공유하고, 수상된 춘향이 사후활용 방안, 대동길놀이 퍼레이드 고도화, 춘향제 농업 전략 등 향후 발전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드러난 성과와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년 제96회 춘향제는 물론,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남원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축제는 시민과 행정, 그리고 춘향제전위원회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완성도 높은 축제에 치러질 수 있었다"며,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보완할 점은 더욱 꼼꼼히 살펴 남원의 대표 축제가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